

(2026. 2. 25)

연금연구회 12차 세미나 보도자료

<2026년 2월 25일 오후 2시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>

연금연구회는

국회 의원회관에서

“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방안” 을 주제로 하여
제 13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.

연금연구회 13차 세미나 관련 제반 사항은

연금연구회 공식 홈페이지(www.pensionfutureforum.org)

성명서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발표자 보도자료>

발표 1 : 박준영 청년 (경희대 산업경영공학 전공)

- 가만히 있으라! -

청년들 돈 20%씩 뜯어다가 자신들의 부동산과 주식투자에 가져다 붙인 것이 지난 연금개혁의 본질이다.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저지른 국가적 패륜이자 폭력이다. 그럼에도 개혁으로 재정상태가 건강해졌으니 '가만히 있으라'고 한다. 한 푼도 손해보기 싫어서 아들딸 손자손녀 돈이나 뜯어가는 나쁜 어른들이다.

발표 2 :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학과장

(22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)

- 국민연금 운용 거버넌스 개혁방안 -

1. **구조적 한계 진단:** 현행 국민연금 거버넌스는 이해관계자 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, 기금운용의 핵심인 '투자 전문성'과 '독립성'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맹점을 안고 있다.
2. **패러다임 전환 촉구:** 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현행 '정치사회 대표성' 모델에서 '투자 전문성'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.
3. **독립 추천위원회 법제화:** 이를 위해 캐나다 CPPIB 사례와 같이 '독립 추천위원회'를 신설하고, 투자위원의 금융·투자 전문성 요건을 법률로 엄격히 규정하여 정치적 임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.
4. **정부 역할 제한 및 CIO 권한 강화:** 정부의 역할은 의사결정 개입이 아닌 '감독자'(일본 GPIF 모델)로 제한하고, 최고투자책임자(CIO)에게 실질적이고 독

립적인 투자 집행 권한을 대폭 위임해야 한다.

5. **강력한 실질적 방어 기제 구축:** 기금 독립성 훼손을 막기 위해 외부 권력과 의 비공식 접촉 기록을 의무화하고, 부당한 개입 적발 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연대 배상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재 조항이 필요하다.

6. **독립 투자법인(KPIB) 설립 로드맵:** 궁극적으로는 기금운용조직을 공단에서 분리하여 '완전 독립형 기금운용공사(KPIB)'로 출범시키는 3단계 개혁 로드맵을 가동해야 한다.

7. **기대 효과:** 이를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수탁자 책임을 다하는 연기금으로 거듭날 수 있다.